

## 피케티, 『21세기 자본』 기독교세계관으로 읽기

### 피케티의 주장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빈부 격차가 벌어져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는 최근에 발표한 『21세기 자본』에서 19세기의 칼 마르크스(1818~1883)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시장경제는 양극화의 힘이 강해서, 세습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는 민주사회와 사회정의를 파괴할 잠재력이 있다고 경고했다.

마르크스는 유물사관에 기초한 반면에, 피케티는 장기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현대경제학적 버전이라고 평가받는다. 피케티는 혁명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통해 자본주의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본이탈을 막기 위해서 각국이 서로 협조하여, 최고 85%의 누진적 부유세(wealth tax)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 이보다 높은 부유세를 부과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제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케티는 세습자본주의로 가는 힘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본수익률( $r$ )이 경제성장률( $g$ )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자본이 많으면 자본의 수익률이 체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자율이 높고, 자본과잉국에서는 이자율이 낮다. 그런데 피케티는 역사적 통계를 활용해 자본의 수익률이 4~5%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였다. 반면에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는 고성장의 시기가 있지만, 100년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 평균으로 볼 때는 1.5%를 넘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다( $r > g$ )고 주장한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이자 이사이다.

이것( $r > g$ )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자본수익률( $r$ )은 자본을 보유한 고소득층의 수익률인 반면에, 경제성장률( $g$ )은 저소득층을 구성하는 노동자들의 평균수익률이므로,  $r > g$ 이 의미하는 바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성장의 과실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세기에는 예외적으로 반대현상이 있었지만, 21세기에는 글로벌 인구증가율도 낮아지고, 지난 세기에 있었던 그러한 높은 생산성의 증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r > g$ 의 현상이 지속되어 빈부격차의 확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수익에 대해 높은 부유세를 부과해서 자본수익률( $r$ )을 낮추어 부가 세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는 최근에 발표한 『21세기 자본』에서 19세기의 칼 마르크스(1818~1883)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시장경제는 양극화의 힘이 강해서, 세습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는 민주사회와 사회정의를 파괴할 잠재력이 있다고 경고했다.**

## 피케티 현상

지난해 8월에 이 책이 프랑스에서 출판되었을 때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3년 베스트셀러 100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1년이 지난 올해 4월에도 출판물 랭킹 192위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주장이 새로운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대혁명의 전통을 가진 프랑스에서는 불평등 문제는 정치적으로 주요 이슈였다.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사회당의 올랑드 후보는 고소득층에게 75%의 높은 소득세를 도입하자고 했고, 피케티도 이를 적극 지지했다. 그런데 이 부유세법은 대법원에서 위헌판결 받아 철폐되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피케티는 한물갔다고 생각하는 두 세기 전의 마르크스의 주장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올해 3월에 영어판이 출판될 때 한때 품절이 될 정도의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 한 달여 만에 8만여 부가 팔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한국에서도 9월에 출판된 이후 11월에 알라딘 주간베스트 1위에 올랐다. 어려운 경제학 용어와 그래프로 가득 차 있고 800쪽이 넘는 딱딱한 학술서가 이렇게 인기를 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피케티 현상’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열풍을 불러온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 2011년도 겨울에 시작된 Occupy Wall Street(OWS) 데모에서 보듯이 미국 사회에서는 불평등의 심화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등에 대해서는 민감했지만 소득 격차에 대해서는 유럽 대륙에 비해 비교적 관대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1971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 1901~1985)가 제시한 이론 때문이다. 그는 1913~1948년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성장과 경제적 불평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국민소득 중 상위 10%의 몫은 1920년대에 45~50%였던 것이 1950년대 35% 미만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초기에는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어느 수준을 지나면 불평등이 완화된다고 하는 ‘역U’자 형태의 쿠즈네츠 곡선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케티는 쿠즈네츠가 사용한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된 추세를 발견했다. 앞에서 설명한 상위 10%의 몫이 2000년대 이후 다시 45~50%로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가장 자유주의적인 미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미국에서 더욱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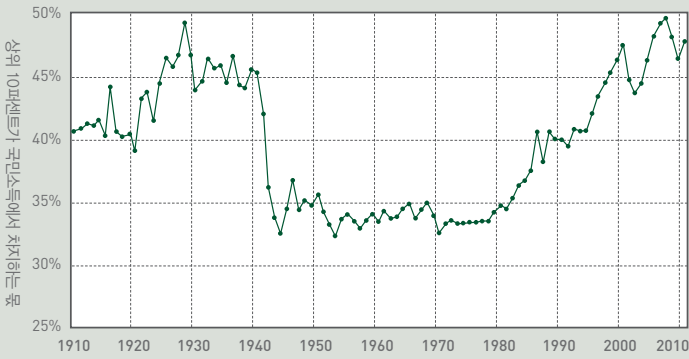


그림 1. 미국의 소득불평등 1910-2010

출처: 피케티, 도표 1.1 36쪽

한국에서도 미국 못지않은 뜨거운 반응을 보인 이유도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빈곤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크게 늘어났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빈곤층 비중이 1990년의 7.1%에서 2010년에는 12.5%로 늘어났다. 게다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자각하는 ‘자각중산층’ 비율은 46.4%에 불과한 반면에,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려 50.1%나 되었다(현대경제연구원, 2012.8).

피케티의 주장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반응은 매우 극단적으로 갈라진다. 진보 성향의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21세기 들어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극찬한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학교과서의 저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수십 년의 추세를 기초로 앞으로 세습자본주의가 올 것으로 예측한 것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피케티의 학문적인 공로는 소득세 자료를 활용하여 빈부격차에 대한 주요국의 역사적 자료를 잘 정리했다는 것이다. 쿠즈네츠 이후에 소득세를 활용한 빈부격차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피케티는 프랑스에서 발전된 장기 시계열 자료 분석을 중시하는 아날학과 전통을 이어받아 자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기초로 분석을 했다.

## 피케티 현상 - 기독교세계관으로 읽기

성경의 어느 특정 구절에 기초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빈부격차 문제와 이에 따른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성경이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더 정의롭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장기적으로 고착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레위기 25:8-55절의 희년제도에 잘 나타나 있다. 50년마다 사회를 리셋(reset)시키도록 희년제도를 실시하라고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희년제도를 지키지 못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함께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말았다. 구약성경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우상숭배와 함께 가난한 자를 압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01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가 『The Price Of Inequality(불평등의 대가)』에서 미국 사회를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사회라고 비난했다. 기회의 나라였던 미국이 점차 지대 추구를 하는 불평등한 나라로 변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상위 소수의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많은 부를 보유해 계층적으로 분열된 사회가 위험하다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문제는 빈부격차가 위험한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다. 20세기 공산주의 실험을 통해서 경험한 바와 같이 평등한 사회를 이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 글로벌 부유세의 한계

글로벌 부유세 부과는 현실성이 적다는 주장이 많다. 그 이유는 첫째, 세계 각국이 부유세 부과에 공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금 낮추기 경쟁으로 인해서 선진 7개국 평균 법인세율이 1981년 44%에서 2009년 27%로 인하되었다. 그리고 구 공산권 국가들은 불공평한 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최근에 세금 완화로 역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했고, 2006년에 부유세를 폐지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이중과세제도를 도입해서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을 자본소득세율보다 높였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보면 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누진적 과세로 빈부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는 현실성은 떨어진다.

두 번째는 피케티의 주장 선진국에 해당되는 이론이기 때문 아직 경제성장을 더 추구해야 하는 나라에는 적용이 안된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투자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들이 같은 조세정책을 부과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 소득세 자료의 한계

먼저 피케티 주장의 약점은 소득세 자료가 가진 한계 때문이다. 상위 소득계층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바뀐다면 세습사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소득세 자료는 상위 고소득 집단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계층의 이동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미국의 계층 이동성은 높은 편이다. 미국 보스턴대학교의 로런스 코틀리코프 교수에 의하면 2001년 포브스선정 부자 리스트의 60%가 1989년에 없었던 사람이고, 25%는 1998년에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가계 소득 조사 연구(Cox & Alm)에 의하면 1975~1991년(25년)

동안 1975년의 저소득층 20% 중 5%만 저소득층으로 남아있었고, 나머지 95%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경우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백만장자의 80%는 1세대이며, 최상위층 1%의 부자들 중 상속의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소수의 부유층이 많은 자본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렇게 계층간의 이동이 많은 사회에서는 빈부격차의 문제점이 상당히 상쇄된다.

## 견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극심한 빈부격차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차이는 빈부격차의 원인이 자본주의 때문인가하는 점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원인을 자본주의에 돌리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 자본주의가 빈부격차의 원흉이라는 주장이 마르크스 이후에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시장경제 때문이라기보다는 각종 특권과 이익의 보장을 만들어 내는 구조가 더 큰 문제이다. 프랑스 아날학파의 선구자 브로델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구별했다. 그는 상인과 귀족과 같이 어떤 특별한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그러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불렀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을 자본주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이전에 상인 계층과 왕이나 귀족 등 권력자들이 유착한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날 발달된 자본주의에서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브로델이 말한 시장경제를 말한다. 따라서 오늘날 주류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의어로 사용한다.

사실 빈부격차를 비롯한 각종 격차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다.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신분 격차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도 극심했다. 버클리 대학의 고대사 교수를 역임한 로버트 냅(Robert Knapp)이 쓴 『99%의 로마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에 의하면 로마 사회는 전체 로마 제국 5~6천만 인구의 0.5%도 안되는 3만~3만5천명의 호네스티오레스(honestiores, ‘더 고귀한 자’)들이 부의 80%를 소유했다. 나머지 99.5%는 휴밀리오레스(humiliores, ‘덜 고귀한 자’)라고 불렸으며, 이 두 계층 사이에 사회적 단절이 있었다. 피케티는 자본주의의 빈부격차가 과거 신분사회 못지않다고 말하지만, 과거 전근대사회의 각종 신분적 차이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자본주의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없다. 과거 동양의 왕조시대나 서양의 귀족 사회는 물론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신분적 격차가 존재했고, 신부를 비롯한 종교지도자도 역시 특권층이었다. 전자본주의 사회의 격차는 대부분 권력과 신분에서 유래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격차는 주로 자본의 보유량에 달려있다는 것이 피케티를 비롯한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학자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자본의 힘뿐만 아니라 창의성, 아이디어, 기업가정신 등 부를 가져다주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상당히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이든 어떤 사회이든 특권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 간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집단행동의 원리』로 유명해진 맨슈어 올슨(Mancur Olson)이 강조한 각종 이익집단이다. 브로델이 말한 상인과 귀족의 결탁이나 정경유착도 일종의 이익집단이다. 이익집단은 사회의 피라미드에서 상층부에 있을 수도 있고 노동조합과 같이

하층부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각종 이익집단들은 정의라는 이름이나 보호라는 이름으로 각종 규제를 만들어 계층이동을 가로막는다. 인위적으로 평등사회를 만들어낼 수 없더라도 이러한 이익집단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가 비효율적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가 경제성장에 효율적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빈부격차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대개 경제성장의 유용성은 과소평가한다. 피케티도 빈부격차에 너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프린스턴대학의 앵거스 디턴교수는 『위대한 탈출』을 통해서 인류가 빈곤을 탈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며, 아직도 70억의 지구 인류 가운데 40억이 성장이 필요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나라가 많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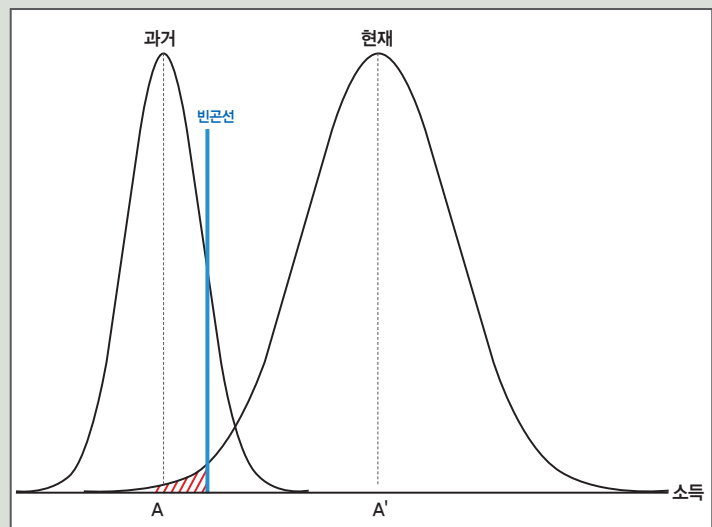


그림 2.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출처: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보기』, 71쪽.

〈그림 2〉에서 보듯이 현재의 빈곤선이 과거에는 잘 사는 계층의 소득일 수 있다. 이렇게 경제성장을 통해서 소득분포도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의 저소득층도 빈곤선을 탈출할 수 있다면 이것이 주는 의미도 매우 크다. 피케티가 주로 관심을 갖는 상대적 빈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절대적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과 물질을 우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절대적 빈곤을 타파하고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성경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70억의 인류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지구를 채워나가셨다. 그리고 그들의 물질적 생활을 위해서 자연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일반은총으로 주셨다.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했을 때 만나를 그쳤듯이, 우리에게 주신 각종 능력을 통해서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게 하셨다. 성경은 결코 경제성장은 악이고 베품만이 선이라고 하지 않는다. 창의적이고 남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국 경제성장도 가져오고, 빈부격차도 낮출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 한국의 상황에 맞는가?

빈부격차는 주로 소득이나 자본소득으로 측정한다. 그런데 자본소득은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소득이 많이 사용된다. 지금까지 소득불평등도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계조사자료'에 기초한 지니계수인데, 이에 의하면 한국은 매우 평등한 나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최근에 피케티가 사용한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가장 불공평한 나라에 속한다는 연구도 나왔다. 그런데 국세청 자료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각 세금의 유형별 자료는 나오지만, 개인별 소득을 파악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통합되지 않아 개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파악이 안된다.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와 이중적으로 계산이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면세자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아 소득불평등도를 연구하는데 국세청 자료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개인연구들은 자의성이 많아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통계청에서는 지난해에 처음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초한 소득불평등 통계를 활용해 신지니계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야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의 통계자료를 내놓고 있지만, 한국에서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신뢰받을 만한 통계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여야가 저마다 자의적인 통계를 가지고 주장할 경우 국론분열만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뢰받는 통계를 제공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50년간 한국은 고도성장과정에서 자본수익률보다 경제성장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피케티가 주장한  $r > g$  현상이 한국에서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면 한국도 피케티가 예측한 바와 같이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다. 한국과 같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자본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국도 언젠가는 이런 선진국의 고민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가난한 계층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비용을 낮추어 계층간의 이동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도 이 점을 가장 강조한 바 있다. 교육개혁을 통해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빈곤층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이익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규제 등을 철폐하여 시장경제의 경쟁이 공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㉞